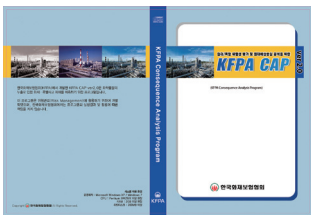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CAP 2.0」 개발

－ 손해보험사 위험관리 및 사업장 안전도 향상에 기여－



KFFPA는 지난 8월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인 「KFFPA CAP 2.0」을 개발하고, 손해보험사에 프로그램 CD를 무료 배포하였다.

「KFFPA CAP(Consequence Analysis Program) 2.0」이란 화학공장 및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폭발 등 다양한 사고의 피해범위를 공학적으로 예측하고, 사고 시 사업장의 물질적인 피해와 사업 중단(기업휴지)으로 인한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KFFPA CAP 2.0」 프로그램을 통해 손해보험회사는 사업장에 대한 보험인수 여부 및 재보험 출재규모 결정의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문 방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국내 손해보험업계 위험관리 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KFFPA CAP 2.0」 프로그램을 개발한 KFFPA는 앞으로도 손해보험사의 위험관리 및 사업장의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3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자료 발간

－ 특수건물 화재원인, 부주의가 가장 높아－

KFFPA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특수건물 중에서 2013년(2013.11~12.31)에 발생한 화재를 조사·분석한 「2013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자료를 지난 7월 e-book 형태로 발간하고, 보험 및 소방 관계기관과 국내 손해보험사 등에 배포하였다.

특수건물은 다수인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국·공유 건물과 1층 이상의 건물, 일정 규모이상의 학원·숙박시설·판매시설·병원·



공연장·방송사업장·다중이용시설·학교·공장·운수시설,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대형건물을 말한다.

「2013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물 대상건수는 33,612건, 화재발생건수는 1,858건, 재산피해액은 3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건수는 100건으로, 사망자 14명, 부상자 193명이었다. 사망자는 공장(7명), 아파트(6명), 숙박(1명) 업종에서만 발생하였으며,

사망사고는 주로 심야시간대에 발생하였다. 화재장소는 주방 206건, 침실 98건, 거실 63건 등 생활공간(649건, 34.9%)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생활공간 화재 중 가장 많은 화재원인은 부주의(332건, 51.2%)다.

전체 특수건물의 화재발생 원인은 담배꽂초 및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695건(3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528건(28.4%), 기계적 요인 259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방화 및 방화의심에 의한 화재건수는 62건(3.3%)이었다.

KFFPA 관계자는 “특수건물의 경우 KFFPA가 정기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시설관리는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화재안전의식 부족으로 매년 화재원인 중 부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 및 화재예방교육 등 꾸준한 안전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안전의식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취약계층 「청소년 안전교실」 개최



NEWS



KFFPA는 8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디모 데지역아동센터의 초·중·고생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박물관 및 캐리비안 베이에서 「청소년 안전교실」을 개최했다.

KFFPA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청소년 안전교실」은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야외활동을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을 즐겁게 익히고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나눔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참가 학생들은 오전에는 화재 및 교통 안전, 소화기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안전교육을 받은 후, 오후에는 물놀이를 즐겼다.

KFFPA 관계자는 “중·고생들은 초등학생에 비해 복지혜택이 적고 학습에 치중하느라 안전에 소홀한 것이 현실이기에 「청소년 안전교실」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디모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으로 물놀이를 경험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아울러 안전교육까지 받게 되어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전했다.

화재안전의 종합 실무 지침서 「화재안전점검 매뉴얼」 발간



KFFPA는 화재예방 및 방재시설의 조사·연구업무의 일환으로 화재안전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록한 「화재안전점검 매뉴얼」 제9판을 8월 발간하였다.

1990년 최초 발간된 「화재안전점검 매뉴얼」은 안전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서 중 하나로, 점검자가 현장 점검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검 시 유의사항”을 비롯하여, 방재기술과 관련된 “건축물의 방화 및 피난시설”, “전기·가스·위험물” 및 “소방시설, “공업별·공정별 방화기준” 등의 내용을 820쪽의 분량에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제9판은 다양한 현장사진, 도표, 통계 분석, 사고사례 등을 실어 소방관계자·기술인들이 기술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최근 행정관서의 질의회신 내용을 넣어 법규의 적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KFFPA는 건물의 방화관리자, 산업계의 안전관리자, 손해보험업계의 위험조사자 및 학계의 방화공학도 등을 위한 화재안전의 종합 실무 지침서인 「화재안전점검 매뉴얼」이 전문지식 습득과 함께 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화재조사관(CFI) 자격시험 실시



KFFPA는 오는 10월 31일(금) 제3회 공인화재조사관(이하 CFI) 자격 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9월 19일까지 시험접수를 신청받았다.

국제방화조사관협회(IAAI;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son Investigators)에서 실시하는 CFI(Certified Fire Investigator)는 화재조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자격증으로서, 국내에서는

KFFPA와 IAAI 한국지회가 협력하여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CFI는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배출인원이 적지만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화재조사 자격증으로서, 세부기준에 따른 학력, 경력, 교육훈련 분야에서 총 150점 이상을 획득한 지만이 응시할 수 있고 영어로 된 객관식 100문항 중 70문항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다.

한편, KFFPA는 IAAI와의 업무교류를 통해 2010년 9월 30일 IAAI 한국지회를 설립하는데 주도하였으며, 화재조사 관련 최신정보 제공 및 세미나 개최, CFI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